

독자 여러분의 글·사진·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시고, 또 현대불교에 대한 의견과 제안·제보도 받습니다.

독자

보낼 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천리안: AEUM 하이텔: HBS3470



부처님 존영사용 술광고 경주 법주 '불교모독'

며칠전에 비행기를 타고 여행할 기회가 있어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했다. 그런데 대한항공 사보를 보다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부처님 존영물에 술을 넣은 경우 법주 광고가 버젓이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영문과 일어로 세계적으로 홍보되는 항공잡지인 대한항공 사보에 불보를 이렇게 모독해도 되는 것인가?
광고에 부처님을 이용하는 이같은 불지각한 상술은 우리 불자들이 감시하고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광주시 화정동 박민철)

도심포교에만 관심두고 농촌포교 등한시 아쉬워

요즘 시골마을에 가보면 곳곳에 십자가를 합사리 발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교회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이다. 내가 어렸을 적만 해도 시골에는 으레 먼 산등성이를 지나면 소담한 절이 있었다.
그래서 음력 초하루나 보름이면 어머니 치맛자락을 붙들고 부처님을 뵈러 산을 오르던 기억을 대부분의 시골출신들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요즘 시골에는 절도 찾아보기 힘들고 절을 지키는 스님을 만나는 것도 힘들다. 산업화 도시화된 사회에 발맞춰 시골의 남아빠진 절을 버리고 스님들도 과감히 도시로 떠나버렸기 때문인가 하는 의심도 생긴다.
도시에서는 아파트촌 곳곳에서 포교당을 집할 수 있다. 이번 기회를 빌어 스님들께 부탁드리고 싶다.
요즘 스님들은 너무 도심포교에만 신경을 쓰는 것 같다. 도심포교에만 전념하지 말고 외지할 곳 없는 우리 농촌의 한가운데서 수행자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이다.
신도들이라는 말도 불교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들었다. 그런 의미에서 더욱 농촌 포교에 불교가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광주시 서구 광천동 박운웅)

그런데 요즘 시골에는 절도 찾아보기 힘들고 절을 지키는 스님을 만나는 것도 힘들다. 산업화 도시화된 사회에 발맞춰 시골의 남아빠진 절을 버리고 스님들도 과감히 도시로 떠나버렸기 때문인가 하는 의심도 생긴다.
도시에서는 아파트촌 곳곳에서 포교당을 집할 수 있다. 이번 기회를 빌어 스님들께 부탁드리고 싶다.
요즘 스님들은 너무 도심포교에만 신경을 쓰는 것 같다. 도심포교에만 전념하지 말고 외지할 곳 없는 우리 농촌의 한가운데서 수행자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이다.
신도들이라는 말도 불교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들었다. 그런 의미에서 더욱 농촌 포교에 불교가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광주시 서구 광천동 박운웅)

일력이라는 자칭 스님의 사기행각으로 평화로웠던 소적새마을은 운동상처부상이다. 소적새마을의 가족들과 자비를 베푸는 후원자들을 유린한

태에 빠져 표정이 평화롭고 편안하게 보이더라. 지계군의 잠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은 바꾸더라도 내가 속한 수만 있다면 기꺼이 바꾸겠노라고 소원을 빌어 보았단다. 빈말이 아니라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나에게 말했다.
잠을 잘 잘 수 없는 고통이 절대로 과장이 아닌 것임을 알

일력 그는 자신의 물욕을 비열한 방법까지 동원해 충족시키려 했고 그에 마땅한 죄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무비판과 맹목적으로 도운 수많은 후원자들은 통탄을 금치못하고 있다.
하지만 소적새마을은 여전히 자비의 도량으로 남아야한다. 상처받은 소적새마을을 위해 많은 불자들이 지 금까지도 더 깊은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말아야 했다.
(광원도 원주시 명동동 김인기)

'크게 짓고 보자' 불사 깨달음과 거리 멀어

근래들어 불교계에서도 금강산 범어사 경동아파트 사건등 환경운동을 통한 사회참여에 눈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적인 환경훼손 외에 필요 이상의 불사로 인해 사찰환경이 훼손되고 있는 것도 주의의 사항이다. 한불이나, 만불이나 하며 나도 나도 이상(我相) 밝히는데 동참하고 있다. 언뜻까지 합세하여 무명에 빠진 사부대중을 더욱 미혹에 빠뜨리고 있다.
석가모니께서도 어리석은 증생들이 부처님 자신만을 의지할까봐 '나를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하라'고 했다.
미혹한 증생을 진정한 인격완성, 깨달음의 길과는 거리가 먼 사찰사업의 물주르만 이끌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종교본연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다시한번 생각하고 종교계가 창조해야 사회도 함께 깨끗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번 범어사 아파트 건립문제를 계기삼아 모든 것을 잘 선택하여 환경오염과 자연훼손을 염려하는 차원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할 것이다. (부산시 북구 만덕동 양해자)

일력 그는 자신의 물욕을 비열한 방법까지 동원해 충족시키려 했고 그에 마땅한 죄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무비판과 맹목적으로 도운 수많은 후원자들은 통탄을 금치못하고 있다.
하지만 소적새마을은 여전히 자비의 도량으로 남아야한다. 상처받은 소적새마을을 위해 많은 불자들이 지 금까지도 더 깊은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말아야 했다.
(광원도 원주시 명동동 김인기)

일력 그는 자신의 물욕을 비열한 방법까지 동원해 충족시키려 했고 그에 마땅한 죄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무비판과 맹목적으로 도운 수많은 후원자들은 통탄을 금치못하고 있다.
하지만 소적새마을은 여전히 자비의 도량으로 남아야한다. 상처받은 소적새마을을 위해 많은 불자들이 지 금까지도 더 깊은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말아야 했다.
(광원도 원주시 명동동 김인기)

일력 그는 자신의 물욕을 비열한 방법까지 동원해 충족시키려 했고 그에 마땅한 죄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무비판과 맹목적으로 도운 수많은 후원자들은 통탄을 금치못하고 있다.
하지만 소적새마을은 여전히 자비의 도량으로 남아야한다. 상처받은 소적새마을을 위해 많은 불자들이 지 금까지도 더 깊은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말아야 했다.
(광원도 원주시 명동동 김인기)

얼마전 저는 남들이 가장 싫어하고 천박한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병원영안실에서 매일 시체 만지는 일을 하겠다고 나선 한 50대 남자를 만났습니다.
자신이 병자누워 있는 동안 부인마저 도망가고 어려운 형편에 자식조차 제대로 키울 수 없어 끝없이 헤어졌다는 그 사람은 남들이 모두 꺼리는 시체 닦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업을 닦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평소 그러한 일에 대해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저는 시체 닦는 일도 이 사회에서 누군가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분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번 돈을 가지고 그 분은 절에 가 부처님전에 공양을 올립니다.

얼마전 저는 남들이 가장 싫어하고 천박한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병원영안실에서 매일 시체 만지는 일을 하겠다고 나선 한 50대 남자를 만났습니다.
자신이 병자누워 있는 동안 부인마저 도망가고 어려운 형편에 자식조차 제대로 키울 수 없어 끝없이 헤어졌다는 그 사람은 남들이 모두 꺼리는 시체 닦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업을 닦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평소 그러한 일에 대해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저는 시체 닦는 일도 이 사회에서 누군가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분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번 돈을 가지고 그 분은 절에 가 부처님전에 공양을 올립니다.

남들이 꺼리는 일 하면서 자비행 실천하는 이웃 "많아"

그런 그분을 보면서 빈자일들의 고통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그분은 시대를 넘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성실히 실천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세상이 바로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애를 돈독히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장이라는 것을 몸소 실천해 보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사회에는 남이 싫어하는 일, 어려운 일을 숭선수행하여 참된 불자의 삶을 신행생활을 통해 열어가는 이들도 많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더욱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런 그분을 통해 저는 이기적이기만 했던 저의 삶을 되돌아볼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 불자님들도 항상 이웃과 더불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실천하는 복된 업을 지으시길 기원합니다.
(서울 동천동 심범련행)

얼마전 저는 남들이 가장 싫어하고 천박한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병원영안실에서 매일 시체 만지는 일을 하겠다고 나선 한 50대 남자를 만났습니다.
자신이 병자누워 있는 동안 부인마저 도망가고 어려운 형편에 자식조차 제대로 키울 수 없어 끝없이 헤어졌다는 그 사람은 남들이 모두 꺼리는 시체 닦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업을 닦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평소 그러한 일에 대해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저는 시체 닦는 일도 이 사회에서 누군가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분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번 돈을 가지고 그 분은 절에 가 부처님전에 공양을 올립니다.

만화 법구경

자신의 장 먼저 자신을 바로 갖추고 그 다음에 남을 가르치라

이향원

자기를 사랑할 줄 안다면 자신을 잘 지켜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밤의 세 때 중 한 번쯤은 깨어 있어야 한다.

먼저 자신을 바로 갖추고 그 다음에 남을 가르치라

자기가야말로 자신의 주인이므로 주인이 따로 있을까. 자기를 잘 다룰 때 인기 힘든 주인을 얻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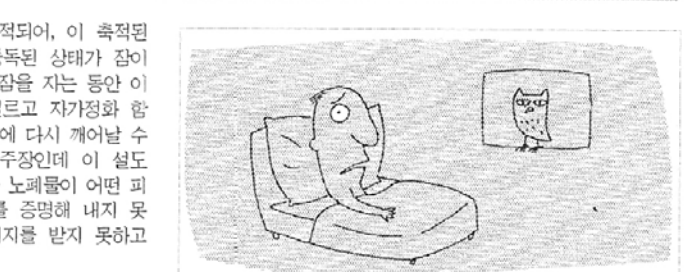
정신과 외래를 찾아오신 환자 한분이 내게 들려준 이야기다. 집안이 아주 유복한 분으로 결혼하기에는 걱정이 없고 잠을 못잘 이유가 하나도 없다. 계속되는 불면증으로 외래를 찾으면서도 증상이 좀처럼 호

이런 후 면관람

수가 있다. 잠에 대한 연구는 요즘 들어와서 대단히 활발하게 진전되고 있다. 그러나 명쾌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고 있다.
한때는 우리 몸에 어떤 피로 물질이 축적되어 일어난다는 설을 주장한 사람도 있다. 말하자면 깨어 있는 동안 활동하면서 생긴 노폐물이 우리 몸안

태에 빠져 표정이 평화롭고 편안하게 보이더라. 지계군의 잠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은 바꾸더라도 내가 속한 수만 있다면 기꺼이 바꾸겠노라고 소원을 빌어 보았단다. 빈말이 아니라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나에게 말했다.
잠을 잘 잘 수 없는 고통이 절대로 과장이 아닌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잠에 대한 연구는 요즘 들어와서 대단히 활발하게 진전되고 있다. 그러나 명쾌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고 있다.
한때는 우리 몸에 어떤 피로 물질이 축적되어 일어난다는 설을 주장한 사람도 있다. 말하자면 깨어 있는 동안 활동하면서 생긴 노폐물이 우리 몸안



에 많이 축적되어, 이 축적된 노폐물에 중독된 상태가 잠이 안 온다. 잠을 자는 동안 이 노폐물을 걸러내고 자가정화함으로써 아침에 다시 깨어날 수가 있다는 주장인데 이 설도 가장 중요한 노폐물이 어떤 피로물질인지를 증명해 내지 못함으로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잠에 대한 불교에서의 가르

축적된 노폐물 정화... 정서적 평형언어

수가 있다. 잠에 대한 연구는 요즘 들어와서 대단히 활발하게 진전되고 있다. 그러나 명쾌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고 있다.
한때는 우리 몸에 어떤 피로 물질이 축적되어 일어난다는 설을 주장한 사람도 있다. 말하자면 깨어 있는 동안 활동하면서 생긴 노폐물이 우리 몸안

수가 있다. 잠에 대한 연구는 요즘 들어와서 대단히 활발하게 진전되고 있다. 그러나 명쾌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고 있다.
한때는 우리 몸에 어떤 피로 물질이 축적되어 일어난다는 설을 주장한 사람도 있다. 말하자면 깨어 있는 동안 활동하면서 생긴 노폐물이 우리 몸안

수가 있다. 잠에 대한 연구는 요즘 들어와서 대단히 활발하게 진전되고 있다. 그러나 명쾌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고 있다.
한때는 우리 몸에 어떤 피로 물질이 축적되어 일어난다는 설을 주장한 사람도 있다. 말하자면 깨어 있는 동안 활동하면서 생긴 노폐물이 우리 몸안

수가 있다. 잠에 대한 연구는 요즘 들어와서 대단히 활발하게 진전되고 있다. 그러나 명쾌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고 있다.
한때는 우리 몸에 어떤 피로 물질이 축적되어 일어난다는 설을 주장한 사람도 있다. 말하자면 깨어 있는 동안 활동하면서 생긴 노폐물이 우리 몸안

수가 있다. 잠에 대한 연구는 요즘 들어와서 대단히 활발하게 진전되고 있다. 그러나 명쾌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고 있다.
한때는 우리 몸에 어떤 피로 물질이 축적되어 일어난다는 설을 주장한 사람도 있다. 말하자면 깨어 있는 동안 활동하면서 생긴 노폐물이 우리 몸안

수가 있다. 잠에 대한 연구는 요즘 들어와서 대단히 활발하게 진전되고 있다. 그러나 명쾌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고 있다.
한때는 우리 몸에 어떤 피로 물질이 축적되어 일어난다는 설을 주장한 사람도 있다. 말하자면 깨어 있는 동안 활동하면서 생긴 노폐물이 우리 몸안

선관단식

정신 육체를 맑고 있는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어 병없는 완전한 건강이 이루어지고 인간이라는 글씨의 속성이 근절되어 높은 정신세계의 삶을 누리게 된다

■ 국민학생들도 쉽게 수행하는 대중적인 수행법입니다.
· 재산적 비용·기아·공복감이 없다.
· 생수, 해독차, 염분·자연당·식물성단백질 섭취
· 수련내용·염분삼매수련·선관삼매수련·연단수련
· 선관단식수련을 쌓고나면 성장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해져(美캘리포니아대학 호르몬연구소 발표) 청소년들의 성장발육이 촉진되고, 건전한 인생관을 세우게 됩니다.
· 수련 희망자에게는
현대인을 위한 선관단식(禪觀斷食)
가이드북
을 우송해 드립니다.
단식으로 효과는 별
· 불면증, 우울증, 열등감 등 신경성 증상
· 암, 중풍, 협착, 당뇨, 신장병 등 모든 성인병
· 위장병, 변비, 간장병, 천식, 디스크, 신경통
· 축농증, 피부병, 부인병, 성병, 약물중독 외
■ 수련장: 경남 사천군 용현면 와룡산 오림선원
■ 안 내: ☎ (0593) 34-1115-6

중국명문 한의대학 박사과정연수

■ 대 상: 한의사, 한약사, 스님, 불자 (침구·기공)
■ 기 간: 8박 9일
■ 수료증: 박사과정 연수 수료증
■ 인 원: 20명 이내
■ 출발일: 1995년 10월 19일(목요일)
■ 남경중의약 대학
중국남경 660-7129
■ 문의처: 자매대학-삼화불교대학
Tel: (02)511-2026, 2027, 2028
Fax: (02)511-1080

월간 대중불교 10월호

정법의 눈
최복소리 제1차 세계유연 여성회의 / 김경자
시사
5·18불기소 결정은 권회되어야 한다 / 이윤림
함께 이루는 청정국토
프랑스 계몽은 먹지도 입지도 마시다 / 상낙진
문화유산 보호 캠페인 1
적이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의 눈으로 읽는 전통문화
구산선문 1 실상선문 살상사 / 김희근·김성철
열과 문화 전담 순천 낙안읍성 / 김효형·김성철
법당 이야기 9 토함산 석굴암 / 김민준
불교와 민속 9 家禪선상에 유입된 불교 / 김종대
페사지를 찾아서 양주 회암사지 / 김성영·최태신
일본을 개혁한 위대한 한국인들 1
일본 최초의 불교신도 '쇼야도목' / 홍준기

오늘 여기에서 말씀대로 살기
대중불교의 빛을 찾아서
극작가 신봉승 씨 / 김희근
불교교리산책 / 엽 9
인입과 만일 / 정승식
생할불교, 어떻게 할 것인가 9
마음관리 / 용타

특별기고
못 다한 교리강좌
부처님 사리,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이평래)

특 집
내가 읽은 경전
적막한 객실의 간경삼매-〈반야심경〉 / 연관
간절한 핵심-〈법구경〉 / 목정배
어래의 지극한 본성-〈원각경〉 / 송찬우
판만의 진수이자 개론-〈능엄경〉 / 혜정
너희도 무대의 주인공이 되리라-〈법화경〉 / 황남채

수행으로 가는 길 7
알고 믿는 믿음, 모르고 믿는 믿음 / 이지열
예제이 보살불교 10 / 법정보살 1
아미타경도를 아룬 법장보살 / 알지
신행상담 이교도인 강남 대신 차남이 제사를 모셔도 되는지요? / 성덕

일상에서 배우는 신문들
수행길의 이면 도반
보살화현 대구의 김내과병원 권장 / 호림
포교당 일기 7 장터 사람들 / 원옥
신학원만 마음이 가는 길 / 삶산
현조각 깨달음이 있는 수필 / 박승원·정영식·박봉은

희외불교 읽기
한생의 나라, 티벳 4 번째 공복증 / 김성정
불주무르, 김상 독립 나들이 / 지옥
한국밖의 한국불교
서부리해에 드날리는 한국선종 / 정용철

편이어나는 불교
직장불교 국민체육진흥공단 무량회 / 오경숙

정기구독신청은
(02)773-5731, 754-1614